



2012년 8월 6일(월)

## □ 미국 경제 동향

- 1) 미국내 휘발유 가격 4주 만에 7% 상승
- 2) 7월중 ISM 비제조업지수 예상 상회
- 3) 미국, 재정절벽 공포 현실화 조짐

## □ 해외 경제 동향

- 1) 프랑스, 유럽연합(EU)에 한국산 차량 모니터링 요청
- 2) 영국중앙은행(BOE), 금년 경제성장률 0%로 하향 조정
- 3) 런던 올림픽, 지나친 규제에 의한 경제적 실패

## □ 산업·시장 동향

- 1) 나이트 캐피탈, 4억 달러 자금 조달 성공으로 위기 모면
- 2) 월가, 유로존 붕괴 대비 방어 대책 강화

## □ 미국 경제 동향

### 1) 미국내 휘발유 가격 4주 만에 7% 상승

- 지난 8월5일(현지시간) 미국자동차협회(AAA)는 미국 전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무연 휘발유의 갤런당 평균 가격이 당일 기준 3.60달러를 기록, 4주 만에 7.1% 상승했다고 발표
  - 이는 AAA가 지난 2000년 가격 조사를 시행한 이래 7월중 가장 높은 상승폭
- 한편 전문가들은 여름 휴가철인 8월에도 오름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
  - 최근 미국의 일자리 수가 늘었다는 소식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데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주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도 원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분석
  -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수주간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10센트 정도 오른 3.70~3.8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

### 2) 7월중 ISM 비제조업지수 예상 상회

- 지난 8월3일(현지시간) 미국 공급관리자협회(ISM)는 7월중 비제조업지수(서비스업지수)가 전월비 0.5p 상승한 52.6을 기록했다고 발표
  - 이는 전문가 추정치 52.0를 상회하는 결과로 지난 6월중 지수는 52.1를 기록한바 있음
- 한편 미국 경제의 90%를 반영하는 ISM 비제조업지수 지수는 지난 2009년 12월 이후 2년 7개월 연속 50을 상회하고 있음
  - 이 지수가 50을 상회하면 비제조업 경기가 확장하고 있다는 의미

### 3) 미국, 재정절벽 공포 현실화 조짐

- 지난 8월6일(현지시간) 뉴욕타임스(NYT)는 전기부품과 발전시스템, 자동차부품 등 여러 제조업 분야의 미국 기업들이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에 대해 연말까지 타협 가능성을 기다리기보다는 미리 투자와 고용을 조정하는 결정을 미리 내리고 있다고 보도
  - 이는 다수의 미국내 기업들이 민주당과 공화당간 세금 감면안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첨예하여 원활한 합의 도취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
  - 이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증가
- 한편 일부 기업들은 이미 신규투자를 중단하고 고용을 미루는 등 재정절벽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 - 전기제품 제조업체인 허벨사는 최근 몇 개월간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몇 건의 장비 주문을 취소, 생산라인 업그레이드도 계속 늦추고 있는 상태
  - 또한 모간스탠리의 설문 결과, 조사 대상 기업 중 40% 이상이 재정절벽을 기업 지출을 제약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로 하나로 꼽은바 있음
- 실제 이 같은 우려가 실물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있음
  - 지난 2011년 4/4분기에 4.1%에 이르렀던 국내총생산(GDP) 성장률은 지난 1/4분기와 2/4분기에 각각 2%, 1.5%로 둔화된바 있음
  - 또한 6월중 공장주문도 예상 밖으로 0.5% 감소
- 특히 상당수 기업들이 이미 내년 지출과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 같은 부정적 영향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

## □ 해외 경제 동향

### 1) 프랑스, 유럽연합(EU)에 한국산 차량 모니터링 요청

- 지난 8월3일(현지시간) 프랑스 정부는 EU 집행위원회(EC)에 보낸 서실을 통해 한국산 수입차에 대한 모니터링 개시를 요청
  - 아르노 몽트부르 프랑스 선업부총장관은 지난 1월과 2월에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50% 급증, 모니터링을 요청했다고 설명
  - 또한 그는 이를 통해 프랑스가 FTA의 실질적인 자동차산업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며, 만약 불공정한 무역 관계라면 추가 조치를 구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힘
- 몽트부르 장관은 지난달 한국산 자동차에 긴급 수입제한 조치(세이프가드)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음
  - 한-EU FTA 조항에 따르면 민감한 특정 산업에서 수입이 갑작스럽게 급증할 경우 관세를 다시 높이는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음
- 한편 EU가 프랑스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프랑스 수입업체들은 수입차를 수입하기 전에 EC의 허가를 받아야만 함

### 2) 영국중앙은행(BOE), 금년 경제성장률 0%로 하향 조정

- 지난 8월4일(현지시간) 영국중앙은행(BOE)은 8월 물가상승 보고서 발표를 통해 영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제로(0)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힘
  - 이는 3개월 전 BOE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.7%보다 하향 조정한 수치
  - 오는 2013년 경제성장 전망도 지난 5월 전망치보다 2%p 이상 하락한 1.5%로 하향 조정
-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이 같은 움직임이 금년 초부터 최근까지 둔화되기 시작한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분석

### 3) 런던 올림픽, 지나친 규제로 인한 경제적 실패

- 지난 8월5일(현지시간) 비즈니스인사이드는 뉴욕대 루비니교수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게시글에서 영국 정책당국이 올림픽 전에 많은 사람을 위협한 결과 런던은 황량한 도시가 돼버렸다고 언급했다고 보도
  - 그는 올림픽과 무관한 일반 관광객은 물론 런던 시민들마저 도시를 떠나 런던이 좀비도시로 전락했다고 언급, 런던올림픽은 경제적 실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
  - 또한 영국 정부가 올림픽을 앞두고 과도하게 교통대란을 우려하여 올림픽 전용차선을 만들고, 교통을 심하게 규제 하는 등 시민을 억박지른 결과 런던 시민 상당수가 도시를 탈출했고 200만 명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
- 한편 런던 최고 상업지구인 위스트엔드는 최근 영국 정부의 심한 교통 규제로 인해 손님이 평소보다 20%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
- 또한 런던의 명물인 오스틴 택시 운전사들의 수입이 8월들어 20~40%까지 감소했다고 주장

### □ 산업·시장 동향

#### 1) 나이트 캐피탈, 4억 달러 자금 조달 성공으로 위기 모면

- 지난 8월6일(현지시간) 나이트 캐피탈은 투자자들이 전환 가능한 우선주를 4억 달러에 매입하는데 합의, 4억4천 만 달러에 이르는 손실액 상당액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
  - 이번 합의로 투자자들은 주당 1.50달러에 나이트 캐피탈 주식을 매입 가능
  - 우선주를 전환할 경우 2억6,700만 주로 이는 나이트 캐피탈의 주식 약 73%에 해당하는 규모
  - 이번 전환 주식 발행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겟코, 블랙스톤, 스타이펠 니콜라스, TD아메리트레이드 등인 것으로 알려짐

- 한편 나이트 캐피탈이 자금 조달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, 시장에서는 아직 고비를 넘긴 것일 뿐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남

### 3) 월가, 유로존 붕괴 대비 방어 대책 강화

- 지난 8월5일(현지시간) 파이낸셜타임스(FT)는 월가에서 유로존 거래 상대방과 계약을 조정하거나 청산하는 은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
  - 신용부도스와프(CDS) 등 위험회피(헤지)용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위험투자액(익스포저)도 축소하는 추세
  - 특히 지난해 여름 이후 JP모간체이스, 뱅크오브아메리카(BoA), 씨티그룹, 모간스탠리, 골드만삭스 등 미국 주요 은행의 유로존 익스포저도 대체로 감소세를 보임
- 한편 FT는 월가가 그리스와 스페인이 유로 도입 전에 쓰던 드라크마와 페세타를 재도입할 가능성 또한 예의 주시, 파생상품 계약상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함